

뉴스홈 | 최신기사

<올림픽> 테니스 금메달 나달, 세계랭킹 1위로

송고시간 | 2008-08-18 16:24


 김동한 기자
기자 페이지

<올림픽> 테니스 금메달 나달, 세계랭킹 1위로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원손 천재' 라파엘 나달(22.스페인)이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이미 1위 자리에 오르는 것이 예정돼 있었던 나달은 18일자 순위에서 랭킹포인트 6천700점이 돼 5천930점의 로저 페더러(27.스위스)를 제치고 1위가 됐다.



2005년 7월25일자 순위부터 2위에 올라 160주간 변함없이 2위를 지켜왔던 나달은 17일 베이징올림픽 금메달과 세계 1위 자리를 한꺼번에 차지해 기쁨이 두 배가 됐다.

반면 올해 메이저대회 우승이 하나도 없는 페더러는 2004년 2월2일부터 지켜왔던 1위 자리를 237주만에 나달에 넘겨줬다.

나달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올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1위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행복한 일이지만 지난 해부터 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이 행복한 이틀을 즐기고 난 뒤 25일부터 시작되는 US오픈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달은 세계랭킹이 도입된 1973년 이후 24번째로 1위 자리에 오른 선수가 됐고 스페인 선수로는 1999년 카를로스 모야, 2003년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 이후 세 번째다.

또 원손잡이가 1위가 된 것도 1974년 지미 코너스, 1980년 존 매켄로(이상 미국), 1996년 토마스 무스터(오스트리아), 1998년 마르셀로 리오스(칠레) 이후 나달이 다섯 번째다.

올해 프랑스오픈, 윌블던, 올림픽을 차례로 휩쓸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달은 특히 윌블던 결승에서 6년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페더러와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따내며 전 세계 테니스 팬들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형택(32.삼성증권)은 지난 주보다 두 계단 더 내려간 98위에 올랐고 아시아권에서는 루옌순(대만)이 73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아나 이바노비치(21.세르비아)가 1주일만에 엘레나 얀코비치(23.세르비아)를 제치고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베이징올림픽 단식 금메달리스트 엘레나 데멘티예바(러시아)는 7위에서 5위로 두 계단 올라섰다.

emailid@yna.co.kr

1010원
모토당량점수 9 12 15 25 34 36 + 3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산'
기네스북 등재'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 체포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coway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 관련기사

<올림픽>스페인 테니스도 인종차별 사진 '물약

<올림픽>스페인 테니스도 '인종차별' 사과

-올림픽<테니스> 나달, 랭킹 1위 축하 금메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8/18 16:24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쫓쫓...누가 확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2년1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다음주부터 인원·시간 제한없다

신규확진 12만5846명...위중증 999명, 이틀연속 900명대

尹당선인 "물가상승 장기화 대비...금리 인상 취약층 피해 최소화"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57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7

3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열?
56

4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41

5 [팩트체크]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계곡살인을 검찰이 혐의 밝혀냈다?
29

뭐하고 놀까? #홍→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P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개인사/제휴문의